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불교연구소의 대행스님께 어우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책일: 편집자) ● 모뎀: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될 겁니다.
공부재료가 많아 정신 못 차려요

문 공부재료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겠지만 한꺼번에 쏟아지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낚시고 있을 수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스님 말씀을 들을 때면 어렵지 않게 거론해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 내 앞에 문제가 닥치면 정말 어렵습니다. 놓는다는 게 잘 되지 않아요. 사실 놓는 게 무엇인지 아직 감이 잡히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놓는다고 열심히 놓고 있는데도 진전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거리가 많아서 생각만으로도 벌써부터 지칩니다. 그저 '고달팠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공부를 해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 우리가 주인공이라 할 때 '주인'이다 하는 것은 에너지요, '공인'이다 하는 것은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화해서 돌아가는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체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가 벌려 놓고,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말썽 만들고, 자기가 울고 불고, 자기가 구덩이에 들어가 놓고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그렇게 어렵거나, 크거나, 높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쉽고, 빠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놓지 못한다고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을 진실하게 믿게 할 수 있어. 오직 당신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어.' 하고 무조건 놓을 수 있어야 해요. 놓으면 자유로 풀리면 고통인 것이니 그렇게 진실하게 믿고 항상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고 생활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주인공이 했다고 믿는다면 수행이요 공부지만, 어떤 일이든 내가 했다고 믿는다면 수행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경계가 무너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문 지금 회사에서는 에너지절약이라는 미명 아래 30도가 넘어야 겨우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온도는 35도가 넘습니다. 그래도 땀 흘리며서 묵묵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을 어느 스님에게 여쭙았더니 스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 때문에 산다" 하시길래 그 말을

16면으로 계속

칠석, 칠성불 원하며 마음 밝히는 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의미

문 칠석이라고 하면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일년에 한 번 만나는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고, 짝에서는 왜 칠석을 큰 행사로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답 견우와 직녀가 일년에 한 번씩 만나지 못해서 애를 쓴다고, 일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일년에 한 번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일년이지만 그 별성에서 생각할 때는 일초, 하루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그 수명이 일년이면 거기에서는, 즉 말하자면 하루라고 볼 수 있겠지요. 비유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년, 하루를 비유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루 24시간 동안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야만 만나는 것이 됩니다. 하루의 만남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체 사생 모두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만남이 모두 다, 견우 직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즉 하늘과

땅이 있으면 인간이 있듯이 모두가 이렇게 결부되고 인연이 돼야 생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칠석(七夕)이다 하는 것은 사대(四大)로 된 몸 자체와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의 마음 자체를 '칠(七)'이라고 말하고, '석(夕)'은 그 마음이 깊은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힌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음과 마음 인연돼 만물 생산되는 도리 견우와 직녀에 비유

서, 내가 형성된 날이나 죽는 날을 그렇게 쳐도 되고, 아침 저녁이라고 쳐도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불을 켤 때나 끌 때나, 이런 것이 바로 과거도 현재고 현재고 현재고 미래도 현재듯이, 아침에 불 켜는 그 마음이나 저녁에 불 끄는 그 마음이나 동결해서 같이 마음을 밝히려는 뜻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침이다 한다면 아침도 현재 내 마음 속에, 저녁도 내 마음 속에...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져야 불이 들어온다구요. 그러니 아침이나 저녁이나 없는 마음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발견해서 밝히는 것이, 그래서 칠석이 칠성이 된다는 소립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르면 칠석이고, 그 도리를 알면 칠성입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내 마음을 모아서, 즉 과거, 미래를 한데 합쳐서, 깨달음을 밝게 가져오는, 즉 광력을 자재로이 쓸 수 있는 그런 중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으로 견우니 직녀니 한 것은 모두가 인연이 없으면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발전도 되어 질 수가 없구요. 창조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달으면 칠성이 된다. 칠성 부처님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칠성 부처님이 명을 관장하고 또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소임을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불 켜는 그 마음이나 저녁에 불 끄는 그 마음이나 동결해서 같이 마음을 밝히려는 뜻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주인공이 정말로 있는 이유

문 저는 선원에 나가지는 않지만 무슨 일이든지 주인공에 관을 하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인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정말로 있다면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답 그러면 먼저 그 대답을 주인공과 중생으로서의 나에 맞추어 봅시다. 먼저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주인공은 우리의 근거가 됩니다. 주인공이 없이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땅 속에 들인 뿌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인공은 우리의 지각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그 나무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있다는 이것이 바로 주인공이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그냥 있다 싶었지만 우리는 인연없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즉 마음 자체는 내놓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습니다. 허공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학생이 질문하는 것도 주인공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그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며 이끄는 것은 참자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입니다. 자성이 공해서 돌아가니 주인공이요, 고정됨이 하나도 없이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붙잡을 것이 없으면서 여전히 말을 하게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나게 하고, 이것 저것 보게 하고, 이것 저것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증 안 됩니까?

우리에게 근본자리가 없으면 생각을 낼 수가 없고, 생각을 낼 수가 없으면 목석이고, 물을 움직여줄 수가 없으면은 무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인공이란 바로 각자 여러분의 뿌리이며 말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인공이 없다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해야 할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아 있는

나를 다스리며 이끄는 참자기가 자성 인생은 참사람 되기위해 거치는 공장

것이라면 본래 주인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체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방생하는게 올바른 일인지요

문 삼보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싶은 불자입니다. 동년에 가까운 포교원에 다니다가 불교의 기초교리를 배우면서 우연히 현대불교신문을 알게되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스님도 읽고 법문도 들을 수 있게 되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포교원에 다니면서 한 달에 한번씩 물고 기 방생을 하고 있는데 방생을 하게 되면 물을 오염시키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

킨다는 뉴스를 자주 듣게 되면서 과연 방생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답 물에서 사는 생물들도 각종의 차원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주고 받으면서 서로 공생하고 공생하면서 공용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동시에 자기가 들고 있는 테두리를 정확하게 찾거나 또 질서정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미꾸라지 노는 데에서 놀고, 게는 게 노는 데에서 놀고, 제각기 모두 자기 노는 데에서 노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방생을 한다고 하지만, 잡아가 다시 놓아준 고기들이 제 집 찾아가는 데 허덕이다가 죽는 걸 보면 난 가끔 그 생각이 나요. 6·25 때 처여 수량

은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고 다리가 부러져서 걸질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면, 고기를 방생한다고 풀어 놓았을 때 제 집 찾아가는다고 애를 쓰는 것이 그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게? 사람들은 무심코 잡아가다 갖다 놓고 또 잡아가다 풀어 놓고 이러는데, 그건 그림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생이란 물 속에 넣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을 잃고 바깥에 내몰린 생명을 물에 넣어 주는 것도 방생이요, 돈이 없어서 방을 얻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은 사람을 돕는 것도 방생이요, 먹지 못하고 굶는 사람에게 먹여 주는 것도 방생이요, 자신의 내면을 믿고 관(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에게 마음의 도리를 알려주는 것도 방생입니다. 어느 것 하나 방생 아닌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생을 특별한 날로 정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모든 인연 속에서 순간순간 틀어막고 보고 틀어막고 행을 하신다면 참다운 방생이

법공양페이지는 동정을 원하는 중년·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임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칭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갈월사 영탑(靈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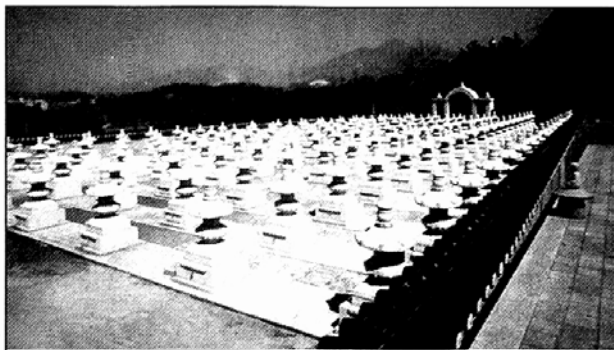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 개선할 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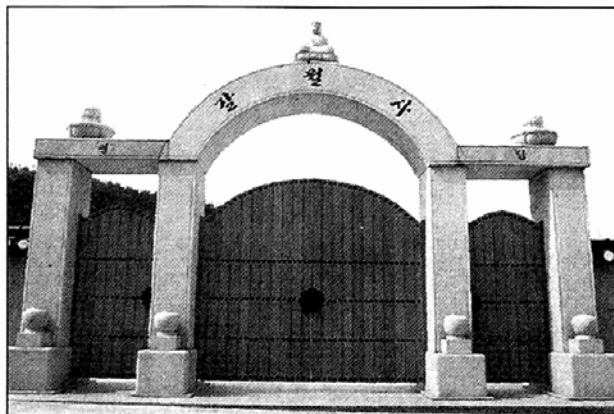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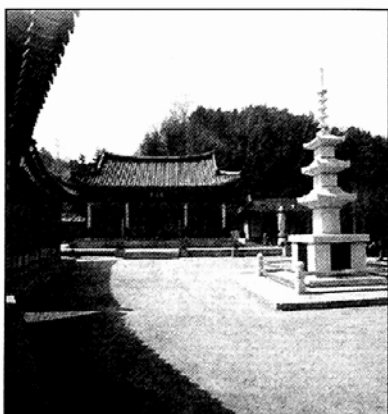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참다운 호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평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호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문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정문

· 모시고 싶은곳, 자주 자주 찾아보고 싶은곳 - 영원한 심터입니다. · 자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인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